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연구과제명 또는 출장명: “KSP 아제르바이잔 최종 보고회 및 토론회”

1. 출장 목적

- '14년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함께 경제산업부(Ministry of Economy and Industry)에서 제안한 아제르바이잔의 효율적인 경제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KSP 사업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함
- 이에 연구원은 '15년 4월 12일~17일 일정으로 아제르바이잔 경제산업부, 재무부, 농업경제조직연구원, 아제르바이잔 수출촉진재단 등 관계자들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 참석하고자 함

2. 출장 개요

-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허 장 선임연구위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아제르바이잔 바쿠	2015. 4. 12. ~ 2015. 4. 17. (4박 6일)
김창길 선임연구위원 자원환경연구부		
전창곤 선임연구위원 식품유통연구부		
어명근 명예연구위원 글로벌협력연구부		
김윤정 초빙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장태평 수석고문 더푸른미래재단		

1. KSP 연구진으로 허 장 선임연구위원(PM), 어명근 명예연구위원(농산물 수출담당), 송주호 선임연구위원(농산물 수출 및 국제협상 담당), 전창곤 선임연구위원(농산물 유통 담당), 김창길 선임연구위원(농산물 생산 및 지속가능한 농업 담당), 김종선 부연구위원(원예농산물 생산 담당), 이윤정 초빙연구원, 김윤정 초빙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음. 본 출장은 각 분야별(생산, 유통, 수출) 최종 보고를 통해 현지 컨설턴트팀과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2. 제안서에 따르면 최종보고회 진행 시, 고위 정책 대화를 함께 시행함. 따라서 수석고문을 위촉해 기조연설, 토론을 통해 한국의 발전 경험 및 정책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최종 보고회에 참여함으로써 최종 보고서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함. 이에,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을 수석고문으로 위촉함. 장태평 수석고문은 전 농림식품장관을 지내고 유사 정책 관련 업무의 경험이 많음.
3. 발주처인 KDI는 본 KSP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기간 중 3회의 현지조사 해외출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종 보고회는 4월 30일로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조사 분석 업무에 대해서 양국간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사업의 결과 보고를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 14년 6월 24일부터 실시하여 주요 산지, 유통센터 및 현지 도·소매시장, 수출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경제산업부 및 현지 전문가팀과의 현지보고회를 실시, 중간연구결과를 공유한 내용을 취합해서 최종 보고회를 진행
- 아제르바이잔 정책실무자 및 현지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의 최종 내용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고자 함
- 2015년 4월 30일 KSP 아제르바이잔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 최종 보고서발간을 앞두고 양국의 연구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최종 보고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향후 발간될 최종 보고서에 반영, 보완하고자 함

4. 일정표

일시	내용	비고
4월 12일(일) 인천 출국(OZ551, TK336)		
4월 13일(월) 첫째 날		
01:50	바쿠 도착 (TK336)	
18:00	한국 대사 면담	
4월 14일(화) 둘째 날		
14:00~18:00	최종보고회	장소: Hilton 호텔 (Baku) 아제르바이잔 참석자 : MoEI, IEQA 관련자 및 한국대사관 대사, 서기관 및 담당직원 등 발표자: 김창길 박사, 전창곤 박사, 어명근박사, Prof. Sadig Salahov, Prof. Dr. Akif Sadigov, Mr. Anar Gasimli
18:30	KSP 평가 인터뷰	Local Consultants
18:30	저녁 식사	아제르바이잔 참석자: 지역 자문위원
4월 15일(수) 셋째 날		
11:00~14:00	현장 및 기관방문	장소: Bina 지역 Greentech
16:00~17:00	고위 정책대화(경제산업부 차관)	장소: 경제산업부
4월 16일(목) 넷째 날		
10:00	체크아웃	
4월 17일(금) 인천 도착(OZ552)		

5. 주요 회의 및 조사내용

가. 대한민국대사 면담

- 방문일시: 2015년 4월 14일 오후 6시
- 방문자: 허장, 김창길, 전창곤, 어명근, 김윤정(이상 KREI), 장태평(더푸른미래재단), 박수진(KDI)
- 면담자 : 최석인 대사, 위준석 일등서기관
- 주요 논의 내용
 - KSP 사업 이후 아제르바이잔의 계속 사업을 위한 대사관의 지속적 협조 요청
 - 2014 KSP 아제르바이잔 사업의 후속 사업을 위한 현지 정부의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하므로 한국대사관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
 - 아제르바이잔의 전반적인 농업현황 및 기후, 문화적·지역적 특성에 관한 의견교환
 - 근접한 나라의 문화적·지역적 특색에 따른 아제르바이잔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농업 발전을 위한 방법 고찰 및 정보 공유
 - 국내 연구진의 최종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연구에 관한 논의 및 질의응답을 하고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공유

나. 2014년아제르바이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최종 보고회

- 일시: 2015년 4월 15일 오후2시~오후 6시
- 국내참석자: 허장, 김창길, 전창곤, 어명근, 김윤정(이상 KREI), 장태평(더푸른미래재단), 박수진(KDI)
- 현지참석자 : 최석인 대사, 위준석 일등서기관, MoEI 관련자, IEAO 발표자 및 관련자
- 주요 논의 내용

- 현지 연구진과 공동으로 분야별 최종 연구결과 발표
 - KSP 연구진은 사업 초기부터 시작된 현지 연구 및 중간 보고회 연구 결과의 코멘트를 반영하여 연구 결과 발표
 - 중간보고서의 코멘트를 반영하고 추가 세부실태조사를 통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보고회에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현지 관련자의 코멘트를 적극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수정
- 장태평 수석고문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석인 한국 대사와 Guliyev Jamaladdin

Alibala 경제산업부 국장(Seriry Hasarova 차관 대리)의 답사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함

- 발표 1: Azərbaycanca dayanaqlı kənd təsərrüfatının mövcud vəziyyəti (Prof. Sadig Salahov)
 - 아제르바이잔의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택스 및 관련법의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 2013년 제정된 친환경법을 토대로 정책적 비교와 함께 개정안 검토요청
 - 토지 이용에 대한 개간시설의 확충 및 공장 이전에 관한 관련 법률 검토. 토지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전반적인 농업에 관한 장기적인 모델을 설정하고 현대화를 이루어야 함
- 발표 2: Production: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Farming Aimed at Developing Promising Agricultural Products for Export (김창길 박사)
 - 아제르바이잔 생산관련 농업 기술에 대한 현황 분석 및 SWOT 분석을 통해 아제르바이잔의 농업 생산량의 문제점을 기술함
 - 한국의 정책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아제르바이잔의 농업 생산량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발표 3: Agricultural Marketing System in Azerbaijan: problems and perspectives (Prof. Dr. Akif Sadigov)
 - 아제르바이잔 유통 및 가공 시설에 관한 자체 분석과 함께 관련 정책을 기술함. 결과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정책적 제언을 추가함
- 발표 4: Distribution: Plans for Improving Distribution System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Revitalizing Market Functions (전창곤 박사)
 - 아제르바이잔 유통 및 가공 시설에 관한 현황 분석 및 시스템을 연구하고 한국의 유통관련 정책을 시대별로 기술함으로써 정책적인 제언을 함께 발표함
 - 아제르바이잔의 곡물 채소, 과일 등이 20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한 사실을 바탕으로 유통과 시장기능의 중요성을 주장함
- 발표 5: Agriculture and Food Industry in Azerbaijan (Mr. Anar Gasimli)
 - 한국의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및 정책적 장단점을 기술하고 아제르바이잔 현지에서 정책적으로 한국의 경험을 고려할 것을 제안
- 발표 6: Export: Government Support Program for Agricultural Export Promotion (어명근 박사)
 - 아제르바이잔 수출관련 정책의 현황 분석을 통해 아제르바이잔에서 수출 유망한

품목들을 선정하고 한국의 정책적 경험을 통해 아제르바이잔의 정책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 질의 및 응답

○ 바쿠 시장의 시스템의 관한 질문

- 중간 상인이 유통에 개입하면 직판 시장이 생겨남. 직판 시장이 성립되는 것은 도시 주변의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있음. 직판 시장으로써는 전체 유통체계를 선도하지 못함. 농산물 거래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 또한 전체를 대표하는 가격이 되지는 못함.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시장은 전체 유통을 보조하는 시장일 뿐. 유통시장을 선도하고 기준가격 제공하고 공정한 유통체계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량이 필요함.

○ 유통 시스템의 관한 질문

- 농가 경지 규모가 작은 양국은 농가가 개별적으로 유통 활동을 할 때, 한 농가가 시장의 팔려는 농산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유통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 따라서, 생산자는 거래 파워가 약해짐. 거래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가 중간상인에게 파는 농산물 양을 늘려야 함. 그렇기 위해서 개별 농가가 조직화하고 물량을 규모화해야 함. 정부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힘을 똑같이 만들어주어야 할 것. 그래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 거래하는 쌍방간의 거래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함. 한국은 1980~1990년대 후반 공영도매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음. 한국이나 아제르바이잔의 소농 규모에서는 공정한 유통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유기농산물의 관한 질문

- 아제르바이잔 전문가 측에서는 아제르바이잔 농산물의 대부분이 유기농 농산물이라고 주장함. 하지만 거의 모든 농산물은 저투입 농산물이라고 볼 수 있음. 유기농산물은 화약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유기농 가이드를 지켜야 유기농산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유기농산물 관련 공식적인 통계를 찾아 볼 수 없음. 0.55%만 유기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이해하고 있음.

사진 1 최종보고회



사진 2 최종보고회 참석자와의 만찬



다. Bina지역의 친환경 농장방문 - Greentech

□ 방문일시: 2015년 4월 15일 오전 11시

□ 방문자: 허장, 김창길, 전창곤, 어명근, 김윤정(이상 KREI), 장태평(더푸른미래재단), 박수진(KDI)

□ 주요 논의 내용

- 양액을 이용한 토마토 및 가지 생산을 하고 있는 Greentech를 방문
 - 토마토 생산 및 수출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시스템을 둘러보고 아제르바이잔의 친환경 농업의 현황을 파악
 - Greentech는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대규모 농업 단지로서 노동자의 농장 출입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벌을 이용한 식물의 수정을 통해 친환경 농업 시스템을 확보함

사진 4 친환경 농장(Greentech) 방문



라. 고위 정책대화 (아제르바이잔 경제산업부 차관 및 관련자)

□ 방문일시: 2015년 4월 15일 오후 4시

□ 방문자: 허장, 김창길, 전창곤, 어명근, 김윤정(이상 KREI), 장태평(더푸른미래재단), 박수진(KDI)

□ 면담자 : Seriry Hasanova (Deputy Minister), Jamaladdin Guliyev (Head of Economic Policy, Analysis & Forecasting Department), Rashad Dayiyev (Acting head of Strategic Planning Department), Kamil Aliyev (Head of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 policy, Analysis & Forecasting), Hala Sofoeraliyeva (Head of Division of Strategic Planning Department)

□ 주요 논의 내용

○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한국 측 전문가의 사업 연구 내용 설명 및 정책적 제언

- (생산) 아제르바이잔의 SWOT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유기농업은 유럽시장과도 가깝고 시장 경쟁력이 크기 때문에 장단기 적으로 수출 유망 품목으로 매우 유력. 이를 위한 핵심과제는;

1. 직접 지불제도 : 한국과 유럽에서 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추천함. 따라서,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함. 유기농산물 인증과 관련해서 농업부 중심으로 단일화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2. 지난 1월에 대통령이 농업 원년을 선포하면서 E-Agriculture를 언급함. 아제르바이잔의 친환경 발전을 위해서 토지에 관련된 토양의 특성이 중요함. 토양정보관리 시스템이 발전되어야 할 것.

KSP 후속 과제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또한, 생산 농자재(농약, 비료 등)가 빈약한 것이 아제르바이잔의 단점.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농자재가 필요함. 비료 공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곡물은 100%인데, 아제르바이잔은 60% 밖에 되지 않음. 관개 등 다른 인프라가 성립이 되어야 생산량이 높아질 수 있음.

- (유통) 아제르바이잔은 독립 이후 20년간 곡물, 채소, 과일의 생산 증가

속도가 빠름. 시장의 거래되는 물량이 많고, 시장의 기능과 유통의 기능이 커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수출로 연결이 되어야 농가 소득으로 연결이 될 것. 농가소득 향상의 장애요인으로는

1. 다수의 소농: 아제르바이잔은 개별로 농사를 하고 조합을 만들지 않음. 농산물 거래에 있어서 생산 농가가 힘이 없음. 따라서, 중간 상인의 힘이 너무 큼. 결과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음. 농업의 가치 사슬 측에서 보면 농가의 정보가 소비자까지 연결이 되지 않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생산 농가의 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하고, 생산 농가 입장에서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서 생산 농가의 힘을 키울 필요가 있음. 생산자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동으로 유통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유통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한국은 농협이나, 공동출하단체의 두 가지 형태가 있음. 정부에서 시설을 설계하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함.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책임지는 것을 싫어해서 마을 주체로는 단체가 일어나기 힘들.

2. 아제르바이잔 시장: 아제르바이잔은 시장개념은 도매시장이 아니라 임대업 정도의 기능만 하고 있음. 시장 가격의 결정은 아제르바이잔 농산물의 모든 가격을 정하고, 수급 조절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시장은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아제르바이잔 유통의 기능을 어느 정도 살려 주어야 할 것. 도매시장의 가격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비자가 가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아제르바이잔의 생산자는 어떤 품목들이 거래되고 가격은 어느정도에서 형성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3. 산지에서 포장과 선별 작업을 모두 해서 수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예) 사과 생산지에는 창고 및 분류 할 수 있는 작업장을 가지고 바로 대도시로 보냄.

- (수출) 신선한 유기농산물의 경쟁력이 큰 아제르바이잔에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아제르바이잔의 신선 과일 채소류, 가공식품 중에서 주스류는 경쟁력이 있음. 하지만 수출시장이 러시아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 집중이 되어 있음. 유기농 고품질 농산물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항공을 이용한 수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항공 운임은 육로나 선박보다는 비용이 높음. 따라서, 정부나 수출 지원기관이 운임의 일부를 지원해야 함. 수출 지원은 WTO가입을 권유함. 하지만 WTO는 개발도상국에 경우 물류 지원을 허용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쌍방간의 설득이 필요함. 식량자급률이나 호당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 개발도상국 지위를 얻는데 효과적일 것. 또한, 아제르바이잔은 유럽 국가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기 때문에 최상급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음. 따라서 비닐하우스 농정기술을 이용해 생산량을 높이고 공급물량을 확보해야 할 것.

○ 아제르바이잔 차관 측 요청사항 및 답변

- KSP 사업을 통해 한국의 농정경험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올해를 농업발전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더 발전된 농정을 연구할 것. 현재, 아제르바이잔은 농산물 부족이 큰 문제였으나 최근에는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음. 따라서, 한국의 성공적인 수출 경험은 정책개정을 하는데 도움을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각 파트별 전문가께서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품목별·방법별 정책 제언을 해주었으면 함. 최종보고서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반영되길 바랍.

사진 5 고위정책대화

